

“한국불교 새 길 만든다는 원력으로 힘찬 걸음”

송광사에서 해인사까지

송광사에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19일 간 423km를 두 발로 걷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지리산 고갯길을 넘어 범종종찰 해인사로 향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봉안한 해인사 참배를 마친 순례단은 이제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로 향한다. 천리순례단 두번째 이야기를 전한다.

○ 응원과 격려 속 최장거리 완보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를 맞은 10월 7일, 천리순례단이 지안재를 넘어 함양 시내로 접어들자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에게 흔쾌히 앞마당과 화장실을 내준 정이숙 사장이 되레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처가 고생길이지만 가장 큰 고역은 역시나 화장실. 불교계 언론 보도를 보고 천리순례단이 함양 지역을 지나는 걸 알게 된 정 사장은 자주 다니는 사찰 주지 스님에게 부탁해 순례 일정을 미리 확인,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정 사장은 “산 중턱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줄 알았으면 화장실이 아닌 우리 주유소 마당을 통째로 내어줬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정 사장이 신심깊은 불자라는 것을 전해들은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이날 정 사장에게 직접 염주를 선물했다. 동이 뜨지 않은 새벽에도 순례단을 위해 주유소 앞마당과 화장실을 개방한 정 사장은 순례단이 떠나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정성스레 합장 인사를 했다.

새벽 3시 일어나 장장 7시간을 걸은 순례단이 하기로 지칠 때쯤 포교원과 사단법인 다나의 밤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밤 서울을 출발해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 후 공양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과 채계장을 준비한 것.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과 방장덕 조계종 포교사단장도 응원을 나왔다. 방 단장은 “한국불교계를 이끄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원만 회합을 기원하겠다”고 했다.

함양 용추 계곡이 있는 인근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낸 순례단이 이제 막 8일차 일정을 시작한 10월 8일, 출발 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순례단 발걸음이 멈춰 섰다. 곧 폭우라도 쏟아질 듯한 흐린 하늘 아래 새벽 여독 속 차로 옆에 잠시 멈춰 서서 우비를 입는 순례단 얼굴에 일순간 걱정이 일렁인다. 순례단이 우비를 입는 동안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말이 없다. 회주 스님도 우비를 입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비가 오면 맞으면 되지”라는 한마디 말 뿐이다.

폭우로 온 몸이 젖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순례단 의지가 읽혔을까. 함양 안의면과 거창 마리면을 넘나드는 고갯길 바래기재를 넘어가는 내내 다행히 흐린 구름이 빗방울을 묶었다. 비가 멈춘 맑은 하늘 아래 순례단은 대대리와 하고리를 무사히 넘었다.

이날도 장장 약 30km 장거리 걷기 일정이 예정된 상황. 거창군 가조면과 남하면 둔마리를 연결하는 고갯길 살피재를 올라 한참을 걷던 순례단 앞에 반가운 게 보였다. 해인사와 거창군이 순례단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마련한 것. 많은 이들의 도움 끝에 긴 시간 불편을 참던 순례단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마친 후 고갯길을 넘었다.

걷기 중간 중간 휴식 시간이 될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짓무른 두 발을 쥐어 잡던 백금선 참가자는 “진언을 외며 화두를 들고 가다보면 우리가 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한국불교 새 길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범종종찰 해인사 입성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순례 대장정 절반을 넘어 가야산 해인사에 올랐다. 순례 딱 절반을 넘어선 10월 9일, 두 번째 삼보사찰에 이르기까지 순례단은 9일 간 223km를 걸었다. 순천, 곡성, 구례, 남원, 함양, 거창, 함천 등 그간 순례단이 거쳐 온 시군구만 7곳에 달한다. 두 번째 삼보사찰인 해인사로 향하던 날, 순례단은 동이 뜨기 전 거창 가조를 출발해 해인사가 있는 소리길에 들어설 때까지 가을 황금빛 너른 들과 가야산에서 이어지는 홍류동 계곡을 지났다.

순례단이 지나는 길에는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의 응원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국민에게 사색과 희망의 공간을 열어 갑시다’ ‘부처님과 새 인연이 맺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중흥의 원력을 바로세우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구법의 천리길, 해인사 사부대중이 응원합니다’ 등 환영 인사가 가득 적혔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이날 순례 구간 중간 지점인 소리길 입구까지 해인사 대중과 마중을 나왔다. 해인사 주지 스님 환대에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순례길을 걸어오는 내내 해인사에서 마련한 현수막을 보고 지친 발걸음에도 힘이 솟았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해인사 주지 스님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남 불자들의 응원 속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이날 27km를 이동해 가야산 해인사에 올랐다. 장장 6시간의 걷기에도 순례단은 쉽 없이 대적광전부터 찾았다. 순례단과 일일참가자, 해인사 대중까지 200여 명이 대적광전 앞 쪽으로 장엄된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었다. 대적광전을 지나 해인사의 상징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관전에 도착한 순례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대장경을 직접 눈으로 보며 참배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 245km 걸어 환호 속 경북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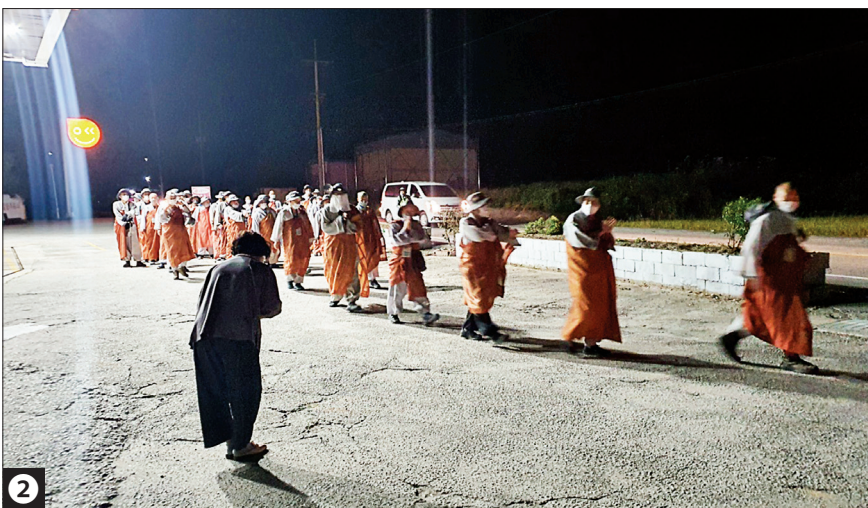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인 10월 10일 천리순례단은 경북 고령으로 향했다.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 뒤로 승가와 재가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가을 황금빛 너른 들과 수놓으며 진풍경을 만들었다.

천리순례단 발길이 가는 곳곳마다 순례단 입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팔공총림 동화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 박수와 환호가 덕곡면을 울렸다. 무엇보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절반을 넘어선 이날, 주말을 맞아 100여 명의 일일참가자가 몰렸다.

불교신문 사장 현범스님과 전 직원이 걷기에 동참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직원 등이 행렬을 따랐다. 순례단은 이날 22km 걷기 일정을 회향하고 다음 날인 10월 11일 고령 대가야읍 배반리와 장기리 등 23km를 걸어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로 향했다.

○ 비바람 불어도 꽃길 일세

고령군 대가야읍 배반리에서 장기리



①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선두로 한 천리순례단이 장경관전을 참배하고 있다. ②함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이숙 사장님. 정 씨는 천리순례단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나와 주유소 마당과 화장실을 개방했다. ③우중 행군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걷고 있는 순례단.

로 넘어가는 길.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인 10월 11일, 우중 행군 속 삼보사찰 중 마지막 사찰인 통도사를 향한 천리순례단의 발걸음에 걸연함이 담겼다. 고도 500~1000m를 오르내리는 띄약별 고갯길도 참고 견디며 넘었지만 우비 속을 파고드는 비바람은 막을 길이 없다. 장시간의 행군 속 우의 안의 가시는 물론 장삼에 속옷까지, 빗물과 한기가 파고 들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신발은 무거움을 더했다. 순례단은 젖은 신발 속 상처와 함께 통통 불어버린 두 발로 힘겹게 빗속을 걸었다.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자는 풍찬노숙(風餐露宿)의 순례, 천리순례단의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모두 불안에서 자유롭다. ‘함께 하니 꽃길’이라는 순례단들의 마음가짐은 진흙탕 길이라도 꽃 비단길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천리순례 일일 참가자로는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이 우중 행선에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보선스님은 “비를 맞으며 순례에 함께 해보니 인도에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 했다.

○ 누적 295km...가는 곳마다 ‘들썩’

“저는 살다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스님과 신도들이 100명도 넘게 걷는다면, 비가 이렇게 오는 날씨에 우산도 안 쓰고... 너무 고생들하시네. 원래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나 봐요.”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인 10월 12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 들어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보고 김선진 이방면사무소 주무관이 노태우 동산마을이장에게 질문을 건넸다. 면사무소부터 순례단이 동산마을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부러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이 지나는 휴식처로 한걸음에 달려 온 길. 노태우 이장은 “원래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걸어서 수행하는 걸 많이들 한다는데 국내에서 이런 광경은 나도 처음 본다”고 했다.

순례단이 이방면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루, 이방면 전체가 들썩었다. 순례단이 지나는 길을 하루 전 미리 전해 듣고 비를 피할 곳과 화장실을 물색해 휴식처를 제공한 성익경 이방면장은 이날 새벽 5시부터 시내로 나와 순례단을 기다렸다. 비를 맞아 추위에 떨고 있는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국물이

라도 마련하고 싶었지만 길어야 10분 정도의 휴식이 주어진다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다고.

성익경 이방면장은 “불교가 국민에게 코로나는 물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직접 전해주는 것 같아 참 기쁘다”고 말했다.

○ 발뚱 들리고 물집 터져도... 걷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인 10월 13일, 경남 창녕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낸 순례단이 오전 걷기를 마친 후 장마면 면사무소 앞에서 아침 공양을 하며 잠시 쉬어가던 길, 안산 쌍계사 주지 항명스님의 구명 난 신발이 눈에 들었다. 오른 쪽 엄지 발가락 발톱이 들려 거의 빠지기 직전, 한 발자국 땀 수 없을 정도로 고동이 심해지자 스님은 아예 가위로 신발을 도려냈다고 했다.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스님이 절뚝이며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던 스님에게 “발을 자르든지, 신발을 자르든지 하나만 택하라”고 단언했다고.

항명스님은 “이젠 발도 제 편에 지쳤는지 아무렇지 않다”고 허허 웃었다. 그런 항명스님을 보며 2조 조원들은 대성

스님 보살핌이 극진하다 했다. 서울 문수사 주지 태성스님이 밤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고 봉대도 감아준 덕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천리순례 13일차에 접어들면서 부상이 일상이 됐지만 순례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간 ‘힘들다’ 한 마디 없던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도 우중 행군 후 의료팀에 발목 통증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파스를 뿌리고 매일 소염제를 먹으며 걷고 또 걷는다.

단순한 ‘걷기’가 아닌 ‘순례’의 여정. ‘나를 돌아보고 남을 이해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비우는 길’,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구법의 길이기 때문이다.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빠르던 다리를 매만지던 서울 개운사 주지 보문스님은 “삼보사찰을 직접 두 발로 걷는다는 것, 불교 중흥과 포교 원력을 세우는 새 길에 함께한다는 것, 나와 이웃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발걸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그냥 걷게 된다”고 했다.

창녕=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불교신문 임직원 천리순례 일일 참가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인 10월 10일에는 일일 참가자 가운데 불교신문 전 직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교계 언론사 전 직원이 걷기에 동참한 건 불교신문이 처음이다.

불교신문사 사장 현범스님과 여태동 편집국장, 채석봉 업무국장 등 임직원 22명이 걷기 행렬에 올랐으며 순례 첫

날부터 전 구간을 걷고 있는 주간 오심스님과 취재 및 사진 기자 3명도 순례단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걷기 구간은 범종종찰 해인사에서 고령여마를 캠핑장까지.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이 이날 전 구간을 함께한 불교신문 임직원에게 순례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부처

총도감 호산스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함께 해 줘 감사하다”

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에 이르는 이 길에 불교신문사 전직원이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호산스님은 “적극적 취재 지원을 비

롯해 지난해부터 불교신문과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인연이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불교, 실천하는 불교를 위한 새로운 길에 종단을 대표하는 불교신문도 계속해서 함께 해 달라”고 격려했다.

지난해 자비순례에 동참했던 현범스님은 “한국불교 새 길을 여는 일에 불교신문사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회답했다.

고령=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10월10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참가자로 동참한 불교신문 임직원.